

## 후세인의 권력 기반

### □ 친인척 중심을 중심으로 체제 유지

- 후세인은 지연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들이 주요 요직을 독점케 함으로써 권좌를 유지해 왔음.
- 후세인은 자기 혈족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부족인 알부나시르(al-Bu Nasir) 부족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 자신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, 이들이 장악한 여러 특수조직들을 통해 일반 국민들과 군부를 감시하고 통제해 왔음.
- 후세인의 권력 기반이 되는 특수조직원들은 후세인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고,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투에도 결사항전의 태도로 임할 것으로 보임.

### □ 공화국수비대(Republican Guard)

- 1980년대의 이란-이라크 전쟁기간 중 후세인의 차남인 쿠사이(Qusai)가 창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바그다드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3개 사단<sup>1)</sup> 등 6개 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병력규모는 6만 5,000~10만 명으로 이라크 전체 지상군 병력의 1/3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탱크, 헬리콥터, 로켓발사기 등 이라크군 중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, 미국은 이들에게 생화학무기도 지급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고

1) Medina사단, Nebuchadnezzar사단, Tawakalna사단 등임.

있음.

- 주요임무는 폭동진압 등 후세인체제의 수호이며, 지난 걸프전 때에는 연합군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#### □ 특수공화국수비대(Special Republican Guard)

-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(Tikrit)와 인근 지역 출신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음.
- 후세인과 핵심인사들 경호 및 바그다드 방어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, 쿠데타 방지를 위해 공화국수비대 등 특수부대까지 감시하고 있음.
- 약 2만 5,000명의 병력이 4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특히 시가전 훈련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됨.

#### □ 페다인 사담(Fedayeen Saddam)

- '후세인을 위한 순교자'라는 의미를 가진 비정규전 전문 부대로, 1994년 후세인이 창설하여 그의 장남인 우다이(Uday)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2만 5,000~6만 명의 티크리트 출신 자원병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됨.
-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이들이 정규군과 민간인을 협박하여 미군에 항복하는 것을 막고,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미·영 연합군의 지상전 수행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.

#### □ 기타

- 다수의 부족의용군(tribal militia)들도 이번 전쟁에서 비정규전에 동원되고

있을 것으로 관측됨. 이들은 후세인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며, 후세인은 각 종교집단, 지역사회 및 전국 각지 부족의 지도자들을 이들을 통제하고 있음.

- 정확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으나, 보안 및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보안부대(Special Security Organization)도 후세인의 핵심적인 권력기반일 것으로 보임.

책임연구원 고재호(☎3779-6663)

E-mail : kohjh@koreaexim.go.kr